

“정부, 조기 추경·확장 재정 나서라” 한목소리

전국 시·도지사들이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및 확장 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시·도지사 11명이 참석한 총회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 ▲2024년 협의회 운영 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전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안건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9회 협의회장 선출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민생 안정을 위해 조기 추경 예산 확보 전략 마련과 내년도 정부 추경에 대비한 중앙부처 협의를 지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姜시장 “소비 심리 위축 경제상황 어려워”
金지사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해야”



17일 오후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기 추경과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특히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2천억

원에서 7천억원대로 감액돼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인 만큼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추진될 경우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도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심리가 급감했다”며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인당 지원금 약 20만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원이 소요된다”며 “자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재정·변은진기자

우원식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꼭 추진”

姜시장·오월단체·시민단체·종교계, 국회 방문 “탄핵안 의결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의정 집무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5·18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대표들과 접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독재자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운영되는 ‘국민의 나라’”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우 의원은 “12월3일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험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그 뜻을 받아들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광주의 오월 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고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1980년 5월 광주의 주

목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 5월 영령들께 인사드리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광주대표단은 우 의장을 만나 비상계엄 해제 및 탄핵소추안 의결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민주화운동 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책 2종을 선물했다. /김진수·변은진기자

광주시, 내년 상반기 인사 조기 단행

3급 2명 등 159명 승진 의결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0일 앞당겨 단행한다. 비상정국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새해 일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인사명단 18면
 광주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3급 2명, 4급 10명, 5급 28명 등 총 159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의결은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선 8기 후반기 시장을 더욱 견고히 추진하고 ‘기회도시 광주’를 견인할 인재 중용에 주안점을 뒀다. 광주시는 조직 안정을 기반으로 ▲광주가치 ▲시민안전 ▲시민편의 증진 등 성과 창출자를 적극 발굴했다. 상반기 3급 승진자는 2명으로 최태조(미래저산산업과장),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 ▲도시 활력 증진 ▲문화로 행복한 도시 ▲미래인재 양성 등 민선 8기 시민행복 비전 단 지역에 대해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 기자

진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1월1일자 4급 이상 간부와 1월2일자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동시에 마무리해 정기인사를 예년에 비해 20여일 앞당길 계획이다. /변은진기자
 道,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개선 논의
 전남도는 17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과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목포시가 공동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포게스트하우스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 주제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원섭 교수는 ‘공유숙박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실태와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발표하며 토론 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도시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석유화학산업 위기, 정부 조속 지원을”

여수산단 대기업을 3분기 공장 가동률 80% 밑돌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이(여수)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7일 오전 9시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한 국

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국제 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제 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조 4천억원으로 추락했고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0%나 감소했다. 조계원 의원은 “현 정부의 민생 대책 부재도 문제지만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내 기간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며 “석유화학 산업 지역에 대해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